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晩秋, 국화에 감싸인 부처님 황금빛으로 평온히 눈 감은 부처님이 국화 향에 둘러싸여 고요히 누워 계신다. 조계사 국화화엄축제에서 활짝 핀 노란 국화들이 부처님 곁을 감싸며 마치 자비와 평온함을 지켜주는 듯 하다. 온화하고 고요한 미소는 마음에 깊은 위로와 안식을 전하고, 번잡한 일상 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글 · 사진=정현선 기자**

조계종 내년도 예산 909억원 확정

11월 5~6일,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서 승인

조직개편 따른 예산 추경 예정
선명상센터 건립 예산 반영돼
후반기 종회의장에 주경 스님
"종단발전 위한 논의 이뤄져야"
태효·경암 스님 부회장 맡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5~6일 진행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을 확정했다. 조계종 2025년 예산은 총 909억5000만원이다.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15억74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중앙분담금, 직할분담금, 법인분담금 2024년 예산에 준해 편성한 것으로 직영분담금은 2024년 대비 5% 증액했다. 특별분담금은 1.1%, 문화유산분담금은 2.5% 증액했다. 기타 세입은 전년도에 준해 편성했다. 교육원과 포교원 인건비를 총무원으로 통합하고 각 원에 따른 사업비는 2024년 대비 동결 수준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은 추경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593억8375만원으로 9.2% 감소했다. 양평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사업이 종료한 결과다. 2025년부터는 10·27법난기념관과 선명상센터 건립이 시작돼 이에 대한 예산도 특별회계로 잡혔다. 10·27법난기념관 기본설계에 76억원이, 선명상센터 건립 자부담금 1억원과 철거비가 5억원 편성됐다. 국제선명상대회 자부담금도 9300만원 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이번 예산은 내년 4월 1일 삼원 통합 이전인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산이며, 3월 종회 때 다시 추경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18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현 의장 주경 스님이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법원 스님이 제정 스님을, 보화 스님이 오심 스님을, 선광 스님이 주경 스님을 추천했다. 제정 스님이 투표직전 사퇴함에 따라 오심 스님과 주경 스님이 후보자가 됐으며 중앙종회 제8조 운영규칙 5조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재적인원 81명 중 80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주경 스님이 49표를 얻어 후반기 종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심 스님은 31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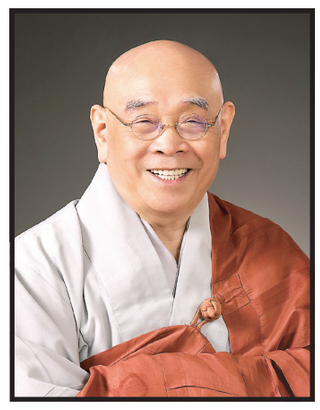
주경 스님은 동료 의원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원스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하반기 중앙종회를 꾸려가겠다"면서 "종회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해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종회 수석부회장은 태효 스님이, 차석부회장은 경암 스님이 맡게 됐다. 사무처장은 재안 스님이 소임을 맡았다.

상임분과위원장도 선출됐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심우 스님, 교육분과위원장에 도성 스님, 포교분과위원장에 가섭 스님, 사회분과위원장에 진각 스님(12교구), 재정분과위원장에 태진 스님, 호법분과위원장에 삼조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 진각 스님(15교구), 문화분과위원장에 정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장은 일화 스님으로 정해졌다. 6인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의장단에 위임됐으며 원경 스님, 탄하 스님, 덕림 스님, 정관 스님, 도림 스님, 성원 스님으로 최종 확정됐다. **〈종회 관련기사 2면〉**

역경·포교 이끈 선지식 여산당 혜거 대종사 원적

11월 4일 오전 9시 51분 입적
탄허 스님 은사로 출가해 수학
탄허기념박물관 열고 참선교육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개발 기여



한국불교 역경불사와 강남 도심 포교 이끌었던 선지식 여산당 혜거 대종사〈사진〉가 11월 4일 오전 9시 51분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80세. 대종사의 분향소는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 마련됐다.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거 대종사는 1961년 월정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으며,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하고 참선과 교학을 중심으로 전법·포교행을 펼쳤다.

혜거 대종사는 30여 년간 경전반을 상설·운영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했으며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 강의, 불교TV 경전 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또한, 전국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해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전파했으며, 마음치유와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 청소년의 인성프로그램 보급에 이바지했다.

혜거 대종사는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은사 탄허 스님의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도 힘썼다. 2010년 준공된 탄허기념박물관 건립불사를 이끈 것도 혜거 대종사다.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혜거 대종사도 현대 한국불교의 역경 불사 이끈 주인공이었다. 동국역경원장을 역임했던 혜거 대종사는 지난 2016년부터 〈화엄경〉 주석서인 〈화엄경소론찬요〉 역경 불사를 시작했다. 올해에도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74권부터 제97권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17~21권이 편역·출간됐다. 혜거 대종사의 이번 역경불사는 2025년 2월에 총 26권으로 완역될 예정이었다.

임종게

물은 물 산은 산/ 이 소식을 그 어디 물어볼까?
푸른하늘 웃음소리에/ 사흘 귀 먹었네
동령에 일어난 구름/ 서풍에 사라지니
눈앞의 청산에/ 맑은 바람과 달

水水山山是何問
碧空笑破三日聾
東嶺雲起西風吹
滿目靑山風月淸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혜거 대종사는 제16회 대원상 대상과 2018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혜거 대종사 영결식은 11월 8일 오전 8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다비식은 월정사 사리골 연화대에서 오후 1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대종사 초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6재까지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봉행된다. 7재는 12월 2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사 령

명)뉴미디어국 총괄국장 박 재 완
명)경영국 국장 홍 승 도
2024년 11월 1일 부 이상 2명

대 광 불 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